

◆ (정책동향) ① 공직사기 진작 추진 동향

- ▶ 공직 이탈이 가속화되고 공무원 선발 경쟁률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, 낮은 보수와 과도한 업무 등으로 공무원들의 직무 만족은 하락하고, 이직 의향은 상승하는 모습
- ▶ 정부는 저연차·실무직 공무원 중심으로 보수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추진할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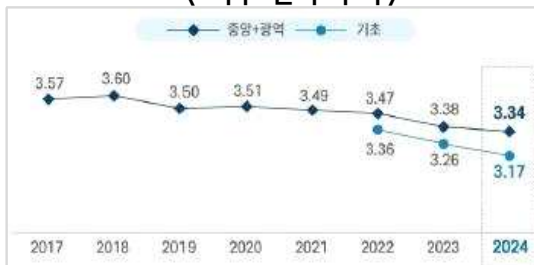
◆ (지역동향) ② (전 국) 전세사기 예방 대책 추진 ③ (대 구) 대학병원 이전 추진 동향

1 공직사기 진작 추진 동향

□ 공직 이탈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공무원 선발 경쟁률도 하락

- 최근,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이 가속화(5년미만 조기 퇴직자*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)하는 가운데, 공무원 선발 경쟁률도 하락하는 추세
 - * '19년 6,663명 → '20년 9,258명 → '21년 10,693명 → '22년 13,321명 → '23년 13,821명
 - 특히, 1.25일 발표한 '25년 국가 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평균 경쟁률*은 34.6대 1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하락세를 기록하였고,
 - * '21년 43.3대 1 → '22년 38.4대 1 → '23년 35.3대 1 → '24년 35.1대 1 → '25년 34.6대 1
 - 같은 달에 발표한 9급 공개경쟁채용 평균 경쟁률은 24.3대 1로 9년만에 반등했지만, 선발 예정인원이 지난해보다 400여명이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추세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
- 한편,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발간한 '2024 공직생활실태조사'에 따르면, 공무원들의 '직무 만족'은 하락하고, '이직 의향'은 상승한 것으로 확인
 -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만족, 성취감 등을 측정하는 '직무 만족'은 '2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며,
 - '이직 의향'은 조사가 시작된 '17년 이래 매년 상승하고 있는데, 응답 이유로는 낮은 보수(66.6%), 과도한 업무(10.2%) 順으로 집계

〈직무 만족 추이〉



〈공무원 이직 의향 추이〉



* 점수산출 : '전혀그렇지않다' 1점, '매우그렇다' 5점 환산하여 평균값

출처 : 한국행정연구원

□ 정부는 자연차·실무직 공무원 중심 처우 개선을 추진

- 인사혁신처는 지난 1월, 자연차·실무직·현장 공무원 중심 처우 개선, 공직문화 혁신 등의 내용이 담긴 '2025 주요업무 추진계획'을 발표
 - 먼저, '27년까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수당을 포함해 월 300만원이 되도록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, 신규·자연차 직원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요가 높은 서울·세종 중심으로 임대주택을 대폭 공급
- 또한, 민원업무수당 가산금 신설, 경찰·소방 위험근무수당 인상 등 보상을 강화하고,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전 부처 조직문화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현황을 공개할 계획

□ 자치단체는 조직문화 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

- 대구시는 부조리 관행*에 대한 '4대 자제 강령'을 선포, '24.10월에는 5~10년 재직자 장기재직 휴가(10일)를 확대하고, 3.11일 행정·보건·소방 등 다양한 직렬 자연차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문화 혁신모임 '영솔루션'을 출범
 - * 인사철 떡 돌리기, 갑작스러운 회식, 휴가 쓸 때 눈치 주기, 비상연락망 공유
- 대전시는 市 해외정책연수 대상자 절반을 5년차 이내 신입 공무원으로 선발하고, 휴가 결재자를 과장(4급)에서 팀·계장(5급)급으로 조정
- 울산시는 올해부터 고질민원·비상근무 등 격무·기피 업무 담당자(6급 이하)에게 중요직무급(월 10만원)을 부여하고, 주말·공휴일 행사 차출 경비(최대 12만원) 지급, 자기계발 휴가를 확대(3일→5일)
- 세종시는 민원 부담 경감 및 공무원 보호를 위해 '23.5월부터 시청 외에도 3개 읍·동 주민센터에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'민원 예절 개선 분위기 확산을 위한 캠페인'을 전개
- 경기도는 '24년부터 1~5년차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휴가(3일)를, 5~10년차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(10일)를 부여, 경기 고양시는 신규자에게는 직장생활 적응 노하우 교육(온보딩 교육)을, 1년차가 되면 공직가치 리마인드·마음 돌보기 교육(웰보딩 교육)을 제공
- 전남도는 '24년부터 '28년까지 7급 이하 소직원 해외연수(3박 4일)를 추진하고, 道 전입자·임용자의 공직 적응을 위해 임용 전 교육(도인재개발원, 3주간), 임용 당일 웰컴키트·안내서 제공, 임용 후 선배공무원 멘토 지정 및 역량강화 지원금(30만원) 지급 등 단계별로 지원
- 제주도는 '24.3월 6급 이하 공무원이 도청을 떠나 민원 스트레스 없이 타 공공기관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'어나더 오피스' 제도를 도입

2 전 국(전세사기 예방 대책 추진)

-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(누적 피해자 2만 8천여명), 정부와 자치단체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
- 정부(국토부)는 청년들의 피해 비중이 높음(2030세대 74.7%)에 따라, 대학교 신입생 대상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, 계약 시 유의사항, 피해사례 및 지원책 등을 안내
 - ※ LH는 올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본격화(주택 매입 사전협의 9천여건 접수)
- 서울시는 오는 5월,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 분석 및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, 신용점수 등 정보를 파악해 임차인에게 전세사기 위험 가능성을 진단해 주는 '전세사기 위험분석' 서비스를 시작
- 경기도는 전세금이 매매가의 80%를 초과하는 집을 나타내는 위험 지도를 도입, 안내시스템을 통해 임차인에게 위험을 사전에 알릴 예정이며, 향후 AI를 접목한 전세사기 근절 솔루션을 구축할 계획
- 경남도는 2027년까지 주거 취약계층, 사회 초년생 등에게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'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' 300곳을 지정·운영
- 한편, 오는 5월 '전세사기 특별법'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대, 피해자들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
 - ※ 국회에는 특별법 유효기간을 2~4년 연장하는 개정안 4건 상정

3 대 구(대학병원 이전 추진 동향)

- 대구 도심 군부대 5곳의 통합 이전지가 군위군으로 확정된 가운데, 대구시는 제2작전사령부 후적지(수성구)에 경북대병원과 의·치대 등을 이전해 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
 - 市는 지난달 대구정책연구원에 의료클러스터 조성 관련 연구를 의뢰하며 계획을 본격화했고, 경북대병원은 병원 신축 및 의대 증·개축을 추진하며 이전에 참여 의사를 표명
 - 지역 의료계는 수성구·동구 주민은 물론 인근 경북 지역의 의료 수요까지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,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수성구 주민들은 지역 의료 인프라 개선을 바라는 분위기
- 반면, 현재 경북대병원이 위치한 중구는 대구백화점 폐업, 시청사 이전 등에 이어 병원 이전으로 도심 공동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반발
 - 또한, 잇따른 병원 이전('19년 동산병원 이전)으로 중구 소재 상급종합병원이 전무하게 돼, 지역 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
- 중구의회는 3.12일 경북대병원 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병원의 현 위치 존립을 촉구, 중구는 향후 대책을 논의할 방침

참 고

시·도지사 주요 일정(3.17)

시·도	시 간	내 용
서 울	-	· 청내근무
부 산	10:00	· 市의회 제327회 임시회
대 구	-	· 청내근무
인 천	-	· 청내근무
광 주	14:00	· 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간담회
대 전	14:00	· 市-K-water 실증 및 판로지원 업무협약
울 산	-	· 공무국외출장(우즈베키스탄)
세 종	11:00	· 市-한국지역난방공사 업무협약식
경 기	17:00	· 천주교 의정부교구장 면담
강 원	13:30	· 어업지도선 강원201호 취항식
충 북	16:00	· 노인 일자리 관련 업무협약식
충 남	14:20	·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
전 북	-	· 청내근무
전 남	-	· 청내근무
경 북	13:40	·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제인 행사 관련 현장점검
경 남	14:00	· 방산수출 확대와 함정 MRO 산업 육성 기업 간담회
제 주	13:50	· 제주개발공사 창립 30주년 기념 비전선포식